

JANUARY 2021 VOL.627

hyangjang



ALL ABOUT BEAUTY

당신을 더 아름답게 할 뷰티 노하우

NEWS-TREND 블랙 스모키 vs 레드 립

SPECIAL 행운을 부르는 뷰티팁

MAKEUP PLAY 제니 메이크업 따라잡기

ISSUE 반신욕을 즐기는 법

AMOREPACIFIC

- 02 NEWS
1월의 가장 핫한 뉴스
- 06 NEWS-TREND
블랙 스모키 vs. 레드 립
- 08 SPECIAL
행운을 부르는 뷰티 팁
- 16 PRODUCT
1월의 잇템
- 20 MAKEUP
2021 트렌드 전망
- 26 MAKEUP PLAY
제니 메이크업 따라잡기
- 30 PRODUCT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 34 PRODUCT
설화수
- 36 PRODUCT
프리메라
- 38 PRODUCT
아이오페
- 40 SCENTS
파퓰리 이야기
- 42 BODY
반신욕을 즐기는 법
- 44 HEALTH
ABC 주스가 정말 좋을까?
- 46 PLACE
따뜻하고 맛있는 수프 가게
- 48 ICON
1월의 인물 인터뷰
- 52 REVIEW
믿고 보는 품평단의 꼼꼼 리뷰
- 54 PRESENTS
미리 준비하는 설날 선물
- 56 EDITOR'S PICK
1월의 강추템

발행일 2021년 1월 1일 발행 통권 627호
 발행인 서경배 편집인 안세홍
 발행 (주)아모레퍼시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제5층 501호 080-023-5454
 제작 문의 노연서 인쇄 (주)태신인쇄
 02-853-6574 인쇄인 서명현
 기획·편집 MCK Publishing Co., Ltd
 에디터 최향진, 김희진, 이성진, 안새롬
 디자인 www.pentagramgraphic.co

※〈항장〉은 WWW.APGROUP.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전국의 아모레 카운슬러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는 방문판매용 매거진입니다.



SINCE 1958
 〈항장〉은 1958년 '화장계'라는
 이름으로 창간한 이후 현재까지
 64년간 627호를 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월간 뷰티
 매거진입니다.

MAIL
HYANGJANG@MCKKOREA.COM

WEB
WWW.APGROUP.COM

AMORE PACIFIC
 COPYRIGHT 2021
 AMOREPACIFIC

(주)아모레퍼시픽의 동의 없이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앰솔루티™ 입체 리뉴얼 안티에이징을 완성하다

타임 레스폰스 인텐시브 리뉴얼 앰플



AMORE PACIFIC

HYANGJANG JOURNAL

NEW NATURAL SKIN: 진정한 파운데이션 프리

바야흐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2021년 봄/여름 시즌을 앞두고 기존에 컬렉션 쇼를 진행 하던 브랜드의 절반 이상이 디지털 언택트 런웨이를 선보이고, 가상현실(VR) 등 콘셉추얼한 패션 영상으로 컬렉션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쇼를 대신했다. 언택트, 디지털로 모든 것을 보고 느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흐름 덕분에 기존 뷰티 트렌드의 흐름을 깨는 참신한 룩도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중 이번 시즌을 관통하는 주요 트렌드는 '파운데이션 프리'다. 기존 베어 페이스, 누드 베이스 메이크업에서 피부 결점을 컨실러나 소량의 파운데이션을 발라 어느 정도 가렸다면, 이제는 얇게 바르고 촉촉하게 표현하는 것을 넘어 파운데이션 단계를 아예 뛰어넘는 것이 트렌드를 이룰 전망이다.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모델들은 말 그대로 민낯에 눈썹 결만 브로우 젤로 살린 리얼 내추럴 룩으로 런웨이를 걸어나왔고, 발랑과 펜디, 알베르타 페레티, 에르메스 등 유명 브랜드의 모델들 역시 입술에 립글로스를 바르거나 볼에 크림 블러셔를 발라 생기만 더한 파운데이션 프리 메이크업으로 등장했다. 디지털로 진행된 프라다의 언택트 런웨이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말간 얼굴의 신인 모델들이 손수 가위로 어설픔게 자른 듯한 일명 '히메 컷'으로 등장했다. 메이크업이 보이지 않는 마스크 생활이 익숙해지며 스킨케어, 홈 케어의 강세가 지속되고, 이에 따라 베이스 메이크업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이 점점 가시화하고 있다.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 이 시대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마치 집에서 채찍근무를 할 때처럼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에 집중하라고 조언한다. ①



EDITOR: AHN SAE ROM, PHOTOGRAPHY: WWW.GETTYIMAGESKOREA.COM, HERA, IOPE, PRADA SOUSHI, THE AVANT GUARD, HAYOU, ANGELA CAGLIA, KORA, OM, JARDINBEAUTY, NET A PORTER



다이어리는 미술관에서
 매년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협업해 아트 다이어리를 선보이는 다림문화재단이 이번에는 일러스트레이터 오아몰 루와 협업한 다이어리와 필기구 세트를 공개했다. 지난 2019년 디뮤지엄에서 진행한 전시 <I draw: 그리는 것보다 멋진 건 없어>에서도 볼 수 있었던 디지털과 아날로그 페인팅을 혼합해 자연경관과 인물을 표현한 오아몰 루의 작품을 사실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캔버스 원단 커버에 라텍스 인쇄 기법으로 프린트했다. 이 아트 다이어리는 온라인 스토어 굿즈모아 GOODSMOA(smartstore.naver.com/goodsmoa_store)와 디뮤지엄 뮤지엄 숍, 광화문 구슬모아 당구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레티놀 파워

판매 1위 주름 개선 에센스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깊은 표정 주름부터 미세 주름까지 효과적으로 완화해주는 아이오페의 레티놀 포 링클. 빛과 공기에 닿으면 쉽게 산화되는 레티놀 성분의 안정화에 성공한 후 20년 넘게 레티놀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며 발전을 거듭해온 아이오페의 효자 아이템이다. 기존 레티놀 포 링클 0.1%, 0.3%를 포함해 이번 시즌 초고함량의 레티놀 성분에 베타카로틴을 추가하며 주름 개선 효과와 피부 항산화 기능을 강화해 업그레이드한 레티놀 포 링클을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이오페 레티놀 포 링클 0.3%. 20ml, 13만원.



EFFORTLESS HAIR



프라다가 쏘아 올린 히메 컷

정돈되지 않은 어설픈 스타일이 언택트 시대의 헤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미우치아 프라다와 라프 시몬스가 선보인 2021년 봄/여름 프라다 언택트 쇼의 모델들은 앞머리와 뒷머리 길이가 마치 계단처럼 차이 나는 헤어스타일을 한 채 걸어 나왔다. 앞머리를 광대뼈 근처에서 대충 자른 듯한 이 헤어스타일은 일명 히메 컷으로 불리며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아티스트 귀도 팔라우는 이 스타일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요즘 사람들은 집에서 본인이 손수 자르고 스타일링할 수 있는 머리를 원해요. 1970~80년대 초반 헤어 커트에서 영감을 받은 이 스타일은 아이론도 필요 없고, 헤어 에센스를 발라 가볍게 질감만 살리면 되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죠." 그의 말대로 정말 가위와 거울(거울도 필요 없을 수도 있다)만 있으면 1분 안에 셀프 커트가 가능하다. 당신의 선택은?



새로운 제니 립스틱 등장

헤라의 시그니처 립스틱 루즈 홀릭이 새롭게 출시됐다. 입술 속부터 올라온 듯한 은은한 광택에 풍부한 보습감을 더한 루즈 홀릭과 같은 보송하지만 속은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루즈 홀릭 매트가 그 주인공. 골드와 메탈이 어우러진 세련된 케이스로 출시되는 헤라 루즈 홀릭은 한국 여성이 가장 사랑하는 컬러와 트렌드를 반영해 엄선한 30가지 컬러로 구성된다. 광고 사진 속 제니가 바른 컬러는 루즈 홀릭 #100 소울 핑크. 그녀의 사랑스러운 메이크업 비법이 궁금하다면 26페이지 제니 메이크업 따라잡기 칼럼을 참고할 것.

이렇게 귀여운 패치라니

스퀴시 플라워 아크네 패치. 20개입, 14달러.



영국의 비건 뷰티 브랜드 스퀴시(Squish)는 귀여운 뽀루지 패치와 아이&치크 패치를 선보였다. 얼굴에 돋은 트러블을 꽃으로 형상화한 플라워 아크네 패치는 하이드로 콜로이드 소재로 만들어 박테리아를 차단하는 건 물론이고, 파라벤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배제해 안심하고 붙일 수 있다. 눈 밑 다크서클과 광대뼈까지 가려주는 체리 마스크도 마스크를 오래 쓰기가 쉬운 불과 광대뼈, 눈 밑의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마스크네' 예방을 위한 마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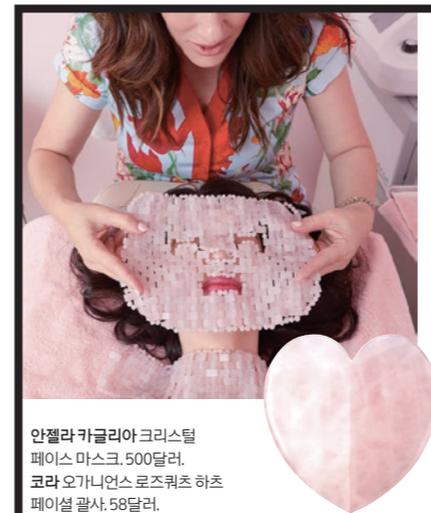
마스크(mask)와 여드름(acne)의 합성어 '마스크네(maskne)'.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다 보니 턱과 볼 등 마스크로 가려지는 부위의 피부 트러블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생김새가 걱정될 수 있다. 마스크네를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원단에 스포츠웨어에 쓸 법한 최첨단 기술이 도입되며 하나에 6만원이 넘는 럭셔리 마스크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스크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이고, 피부 각질 제거와 수분 공급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마스크로 인한 트러블을 예방하기 위해 신소재로 무장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2021년에는 마스크를 벗고 크게 숨쉬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아방가드 바이러스와 비말 차단 기능은 물론, 마스크 내부의 습도를 적당하게 맞춰주고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신소재로 제작했다. 페이스 마스크. 6만원대.



문지르면 라인이 바뀐다?

부기를 내릴 뿐 아니라 얼굴이나 어깨선을 가름하게 다듬어주는 효과가 있는 괄사 마사지는 쉽게 말하면 피부 혈을 누르며 혈액을 타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이다. 홍 스파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괄사 마사지 도구가 다양하게 업그레이드돼 출시되는 중. 얼마 전 국내에 진출한 로제드 자르딘(Rose de Jardin)의 크리스탈 웨이브 롤러를 필두로 호주 브랜드 하오우(HAYO'U)는 두피 마사지가 가능한 옥으로 만든 빗 괄사를 출시했고, 할리우드 셀러브리티들의 에스테티션으로 유명한 안젤라 카글리아(Angela Caglia)는 약 350개의 로즈쿼츠 크리스털로 만든 페이스 마스크를 공개하며 다양한 지압법을 선보였다.



안젤라 카글리아 크리스탈 페이스 마스크. 500달러. 코라 오가니언스 로즈쿼츠 하츠 페이스 괄사. 58달러.



블랙 아이 vs. 매트 레드

2021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뷰티는 어떤 모습일까?

기발한 장소와 인택트 디지털 쇼까지 수많은 런웨이에서 특히 눈에 띄는 2021 뷰티 트렌드 2가지를 포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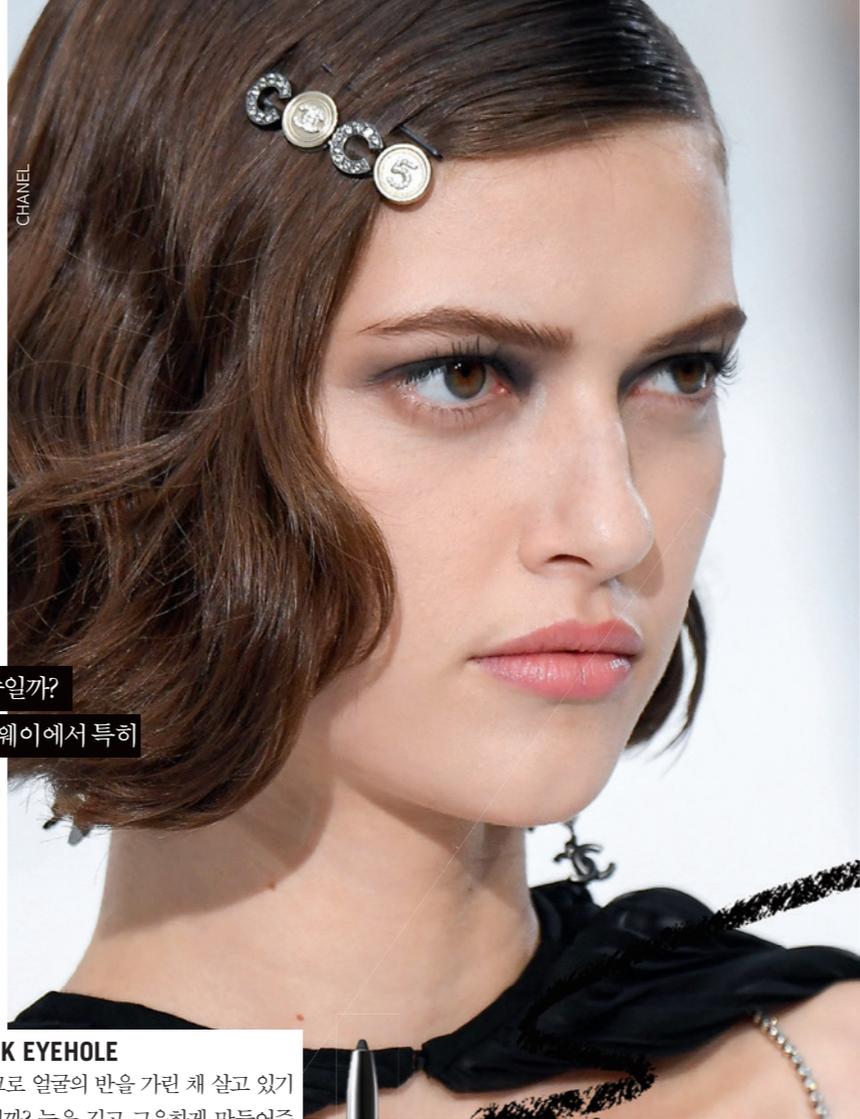


BLACK EYEHOLE

마스크로 얼굴의 반을 가린 채 살고 있기 때문일까? 눈을 깊고 그윽하게 만들어주는 블랙 아이라인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 돌아올 전망이다. 스머징 블랙 아이라인을 선보인 샤넬을 비롯해 블랙 캐츠아이 라인을 변형한 메이크업을 연출한 글로에, 눈 모양을 따라 아몬드 형태의 라인을 꼼꼼하게 그려 이집트 여신을 떠올리게 하는 디올의 룩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샤넬의 클래식한 스모키 아이는 페미닌 스타일부터 매니시 룩까지 다양한 스타일에 모두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이니 눈여겨볼 것. 광대뼈와 이마 등에 자연스러운 윤광을 살린 글로우 베이스 메이크업으로 잡티만 깔끔하게 가린 뒤 블랙 펜슬 아이라이너로 눈두덩이에 짙은 블랙 선을 그리는 디올의 룩이 눈여겨볼 만하다. 스머징이 부자연스럽다면 짙은 브라운 아이섀도로 아이홀까지 자연스럽게 아이라인을 퍼뜨리며 경계선을 없애면 된다.



헤라 아이 디자이너 펜슬. #블랙. 2만5천원.



FULL RED LIP

새봄에는 깨끗한 피부에 채도 높은 레드 립스틱을 바른 원 포인트 메이크업을 시도해볼 것. 에르메스와 발망, 돌체 앤 가버나 쇼에서 볼 수 있는 레드 립 메이크업의 핵심은 입술 산을 살려 꼼꼼하게 바른 매트 풀 립. 아이섀도나 블러셔는 생략하거나 혹은 피부 톤과 어우러지는 누드 로지, 누드 코랄 계열로 은은하게 음영을 살린 뒤 입술에 매트한 레드 립스틱을 발라 전체적인 피부 톤을 밝혀 생기 넘치는 메이크업을 완성했다. 레드 립 메이크업을 할 때 번지지 않고 오래가게 하려면 베이스 메이크업 전에 립 메이크업부터 해보길. 립스틱을 입술 윤곽선을 살려 꼼꼼하게 바른 뒤 파운데이션을 입술 선을 자연스럽게 정리하며 바르면 좀 더 깔끔한 레드 립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또한 입술 양 끝과 입술 산에 파우더를 소량 바르면 립 메이크업이 번지지 않고 오래 유지된다. 





행운까지 부르는 뷰티 케어 팁

과연 나는 올해 왕 혹은 왕비가 될 상일까?

2021년을 자신의 해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정리한 관상 관리 비법!

믿을직한 제품들만 가까이한다면 당신 앞에는 1년 내내 화사한 비단길이 펼쳐질 것이다.

photographer CHOI MOON HYUK(인물), CHOI MIN YOUNG(제품)

editor LEE SUNG JIN

안색을 밝혀라

운을 받아들이는 근간이 되는 피부는 관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맑고 밝은 기운을 부르고 싶다면 피부가 투명하고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할 것. 안색이 밝은 황색이나 자색, 홍색을 띠고 전체적으로 은은한 빛이 흐르면 금상첨마다. 특히 신경 써서 관리할 곳은 T존. 이곳이 밝고 맑으면 얼굴에 기쁨이 흐르고 전체적인 운기가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사하고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피부를 환하게 만드는 제품보다는 믿음직한 성분의 토털 안티에이징 케어가 가능한 제품으로 관리해야 한다.



설화수 진설에센스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 적송에서 채취한 성분을 60배 응축해 담아 피부를 매끈하고 탄탄하게 가꿔준다. 탄력 균형, 투명도 증진, 주름 감소에 고루 효과를 보이는 제품. 50ml, 38만원.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라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 역시 중요한 요소. 피부 속부터 수분으로 꽉 채워두지 않으면 차가운 겨울바람과 건조한 히터 바람 때문에 오후에 피부가 칙칙해질 수 있으므로 단단한 보습막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부담스러운 만큼 번들거리는 광채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금물. 자칫 좋지 않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분 크림을 바르거나 마스크팩을 한 뒤 손에 남은 양을 귀에 바르는 것도 좋은 방법. 귀는 사람의 운세를 보여주는 곳 중 하나이므로 얼굴보다 한 톤 밝고 맑게 가꾸는 것이 좋다.

1. 프리메라 씨드 앤 스프라우트 에너지 마스크 로터스 연꽃씨 추출물로 피부에 수분막을 씌운 듯 촉촉하게 가꾸고 활력을 더하는 순면시트 마스크. 20ml×5매, 1만원.
2.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 건조하고 연약한 피부를 부드럽게 진정시키고, 피부 본연의 컨디션을 끌어올려 수분과 생기를 채워주는 크림. 50ml, 3만9천원.





주름을 최소화하라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주름은 지혜와 재물이 늘어난다는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나, 주름이 너무 깊거나 잔주름이 많은 것은 좋지 않다. 위치도 중요하다. 관상학적으로 이마에 세 줄의 주름이 끊어지지 않고 선명하게 뻗어 있으면 덕과 운이 따른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의 흐름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주름 개선 화장품으로 매끈하게 정돈하는 것이 좋다. 미간부터 코끝까지 맑은 기운이 흐르면 매사에 운이 좋은 것으로 보는데, 미간 주름이나 코 옆에 자리한 팔자주름은 행운을 막으므로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눈 밑이 깨끗하고 밝으면 애정 운과 자식 운이 좋아지므로 눈가 주름과 다크서클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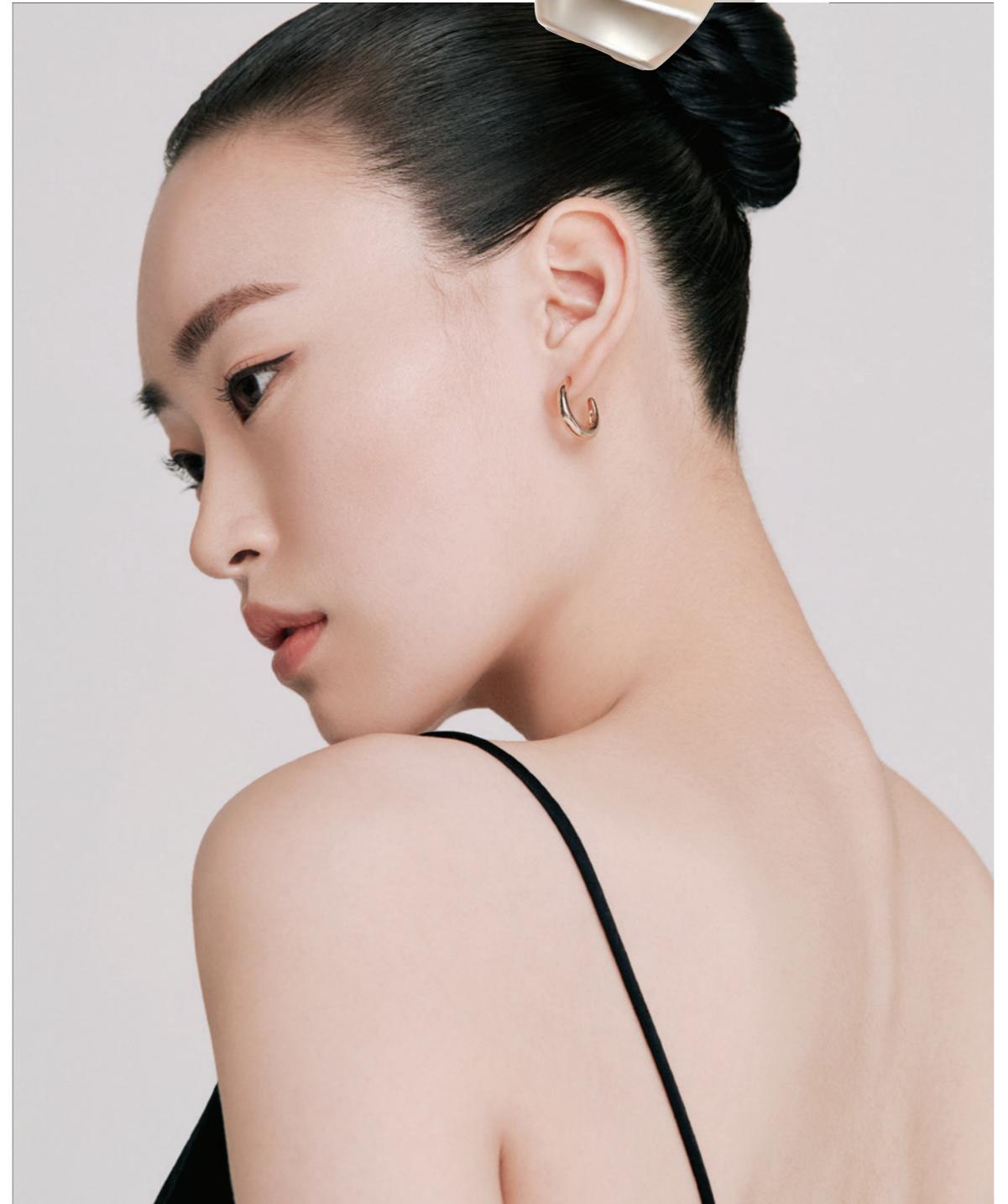
아이오펜 레티놀 포 링클 0.1%, 0.3% 오랜 연구 끝에 찾아낸 최적의 레티놀 함량으로, 최고의 주름 완화 효과를 보장하는 제품. 안정화한 레티놀에 펩타이드 5종 콤플렉스를 더해 토털 안티에이징 효능을 보인다. 0.1% (30ml, 9만원) 제품을 먼저 사용해본 뒤 익숙해지면 0.3% (20ml, 13만원) 제품을 쓰길 권한다.

잡티를 없애라

얼굴에 난 점은 위치에 따라 복점과 흉점으로 나누지만, 잡티는 다르다. 얼굴에 티가 있으면 그게 곧 인생의 잡티로 이어져 말아야 할 인생이 혼탁해진다. 는 설이 있는가 하면, 잡티가 많으면 귀인을 만나기 어렵다는 말도 있으니, 기미나 트러블로 생긴 지저분한 잡티는 적극적으로 치료할 것. 커버력이 우수한 파운데이션으로 가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설화수 퍼펙팅 파운데이션 글로우 SPF17/PA+ 피부의 결점을 자연스럽게 가릴 뿐 아니라 피부 속까지 수분을 공급해 건강한 윤기를 살려준다. 35ml, 7만원.





입술은 도톰하고 붉게 가꿔라

앵두같은 입술은 보기에도 좋고 관상학적으로도 좋다. 도톰하고 붉은 입술이 신복과 귀인을 부른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물 운이 따르길 원하면 오렌지색을, 건강 운을 높이고 싶다면 붉은색을 띠는 립 세럼을 꾸준히 발라 잔주름 없이 매끈하고 건강한 광택이 감도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입술 선이 흐릿하면 자기 것을 챙기지 못해 타인에게 빼앗길 수 있다고 하니 립 라인을 선명하게 그리고, 꼬리가 위로 올라간 입술이나 일자형 입술이 복을 부른다고 알려져 있으니 살짝 미소 짓는 듯한 모양을 그리며 립 제품을 바르자.

설화수 에센셜 립세럼 스틱 #04 로즈 레드, #09 글로우 오렌지 세럼 베이스의 2중 보호막을 씌워 입술을 오랜 시간 촉촉하고 편안하게 지켜주며 맑고 투명한 생기와 운기를 더해준다. 각각 3g, 4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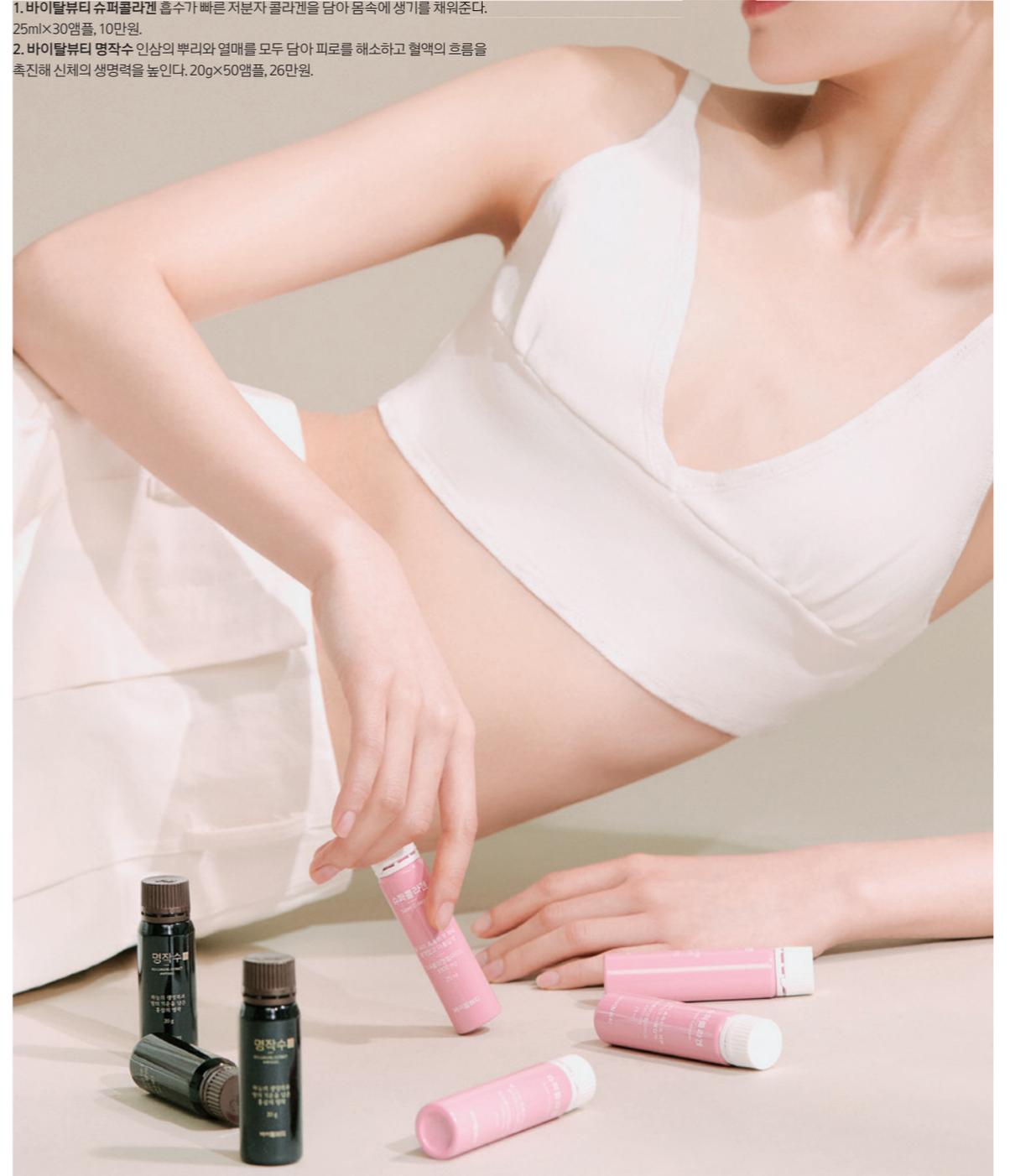


몸속부터 관리하라

생기는 좋은 관상의 필수 조건. 건강한 몸은 생기있는 얼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추워진 날씨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줄어든 활동 반경 때문에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진 요즘이라면 이너뷰티 제품의 도움을 받아 몸속부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운 날씨, 노화의 징후로 지친 몸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다면 콜라겐을, 활력있고 에너지 넘치는 생활을 하고 싶다면 면역력 대표 식품인 홍삼의 기운이 가득 담긴 제품 섭취를 추천한다. ①



1. 바이탈뷰티 슈퍼콜라겐 흡수가 빠른 저분자 콜라겐을 담아 몸속에 생기를 채워준다. 25ml×30앰플, 10만원.
2. 바이탈뷰티 명작수령 인삼의 뿌리와 열매를 모두 담아 피로를 해소하고 혈액의 흐름을 촉진해 신체의 생명력을 높인다. 20g×50앰플, 26만원.



MODEL: JUNG HOI LYN, MAKEUP: JAMIE YOON, JANE PARK, JAKE LIM, LEE (AMORE PACIFIC LUXURY MAKEUP TEAM).
HAIR: LEE HYE YOUNG, STYLING: PARK MI KYUNG

구말 파리에뚜알 된뉘 오드 퍼퓸. 50ml, 19만8천원.

#소프트카날
#플로럴향수

해피 뉴 이어

베스트 스킨케어와 올인원 두피 케어 라인, 그리고
은은한 플로럴 향수로 2021년의 문을
활기차게 열어보자.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AHN SAE ROM



구말 파리에뚜알 된뉘 오드 퍼퓸

외출하기 직전 파우더로 메이크업을 마친 뒤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집을 나서는 매력적인 여성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에뚜알 된뉘 오드 퍼퓸. 아이리스와 로즈, 라즈베리와 파우더리한 향이 더해져 매력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자아낸다.



설화수 윤조에센스 퍼펙팅. 90ml, 13만원.

#퍼스트케어에센스
#5세대자음엑티베이터

설화수 윤조에센스 퍼펙팅

설화수의 베스트셀러 윤조에센스가 강력한 5세대 자음 엑티베이터를 통해 피부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피부를 바탕부터 건강하고 탄탄하게 다져준다. 석류 추출물로 보습과 항산화 기능을 강화해 안티에이징 효과를 극대화한 퍼스트 세럼.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워터. 180ml, 3만원.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에멀전. 150ml, 3만원.

#피부정화토너
 #내추럴큐어플렉스™
 #5 FREE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워터 & 에멀전

끈적이지 않으면서 촉촉하게 스며들어 피부를 진정시키는 오가니언스 워터와 부드럽게 발리는 오가니언스 에멀전. 자연 유래 발아사싹 성분의 내추럴 큐어 플렉스™가 피부 깊숙이 풍부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파라벤, 인공 향 등 유해 물질을 첨가하지 않은 5프리 제품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프리메라 그린티 바이옴 스칼프 쿨링 샴푸. 380ml, 3만7천원.
 프리메라 그린티 바이옴 스칼프 헤어 모이스처라이저. 150ml, 3만원.

#탈모완화기능성샴푸
 #헤어홈스파
 #두피모발케어



프리메라 그린티 바이옴 스칼프 쿨링 샴푸 & 헤어 모이스처라이저

두피부터 모발까지 2단계에 걸쳐 매일 전문적인 탈모 관리를 경험할 수 있는 프리메라 그린티 바이옴 스칼프 라인. 식약처에 탈모 완화 기능성 화장품의 주성분으로 보고된 녹차 추출물과 두피 장벽 강화에 효과적인 프로바이오틱스(락토바실러스발효해물), 보습과 항산화 기능이 우수한 검정콩 추출물이 더해져 두피 도털 케어를 제공하는 샴푸와 헤어 모이스처라이저로 올인원 케어가 가능하다.

2021 트렌드 예보

<향장>이 예측하는 2021 트렌드 메이크업. 다음 4가지 메이크업을 기억한다면 올 한해를
이름답고 세련된 모습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photographer CHOI MOON HYUK
editor CHOI HYANG JIN



HAZY SMOKY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눈을 강조한 메이크업이 트렌드다. 특히 블랙이나 그레이, 깊은 브라운 컬러를 넓게 퍼 발라 안개가 낀 듯 은은하게 연출하는 헤이지 스모키가 대세. 펜슬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그린 뒤 자연스럽게 퍼뜨려 부드러운 스모키 아이를 연출하고, 입술에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볼륨 매트 #498 모보 우드를 바르면 고혹적인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CLEAN & GLOW

깨끗하게 정돈한 윤기 나는 피부는 이번에도 강세, 피부에 밀착해 마스크에 묻지 않는 선풍수 퍼펙팅 파운데이션 같은 제품을 얼굴에 잘 펴 바르고, 헤라 페이스 디자인 브론저로 얼굴 윤곽을 살리면 선명하고 깨끗한 인상을 줄 수 있다.



ROSY FLUSH

볼을 강조한 뒤 같은 톤의 아이섀도나 립스틱을 매치한 원 톤 메이크업은 올해도 유행할 전망. 톤 다운 오렌지는 특히 주목해야 할 컬러. 헤라 섀도 듀오 #04 피키, 헤라 루즈 홀릭 매트 #437 모드 오렌지, 헤라 디자인 블러셔 #3 쉬폰 코랄은 <향장>이 픽한 컬러.



STAINED LIPS

깨끗한 피부에 빨간 립스틱을 바를 때만큼 클래식하고 여성스러운 메이크업은 없다.
단 이번에는 손가락으로 두드려 바른 듯 러프한 느낌의 스테인드 레드 립이 전면에 나섰다. 마스크에 물을
염려도 덜하니 일석이조. 헤라 루즈 홀릭 #300 서울 레드에 당장 도전해보길.

MODEL: HEO JI WON, MAKEUP: JAMIE YOON, JAKE LIM,
JANE PARK (AMORE PACIFIC LUXURY MAKEUP TEAM), HAIR: LEE HYE YOUNG, STYLING: PARK MI KYUNG



제니처럼 메이크업하기

헤라의 시그니처 립스틱 루즈 홀릭이 세련된 패키지와 트렌디한 컬러로 새롭게 변신했다.

루즈 홀릭으로 완성한 제니의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따라잡는 법.

LOOK 1. SOUL PI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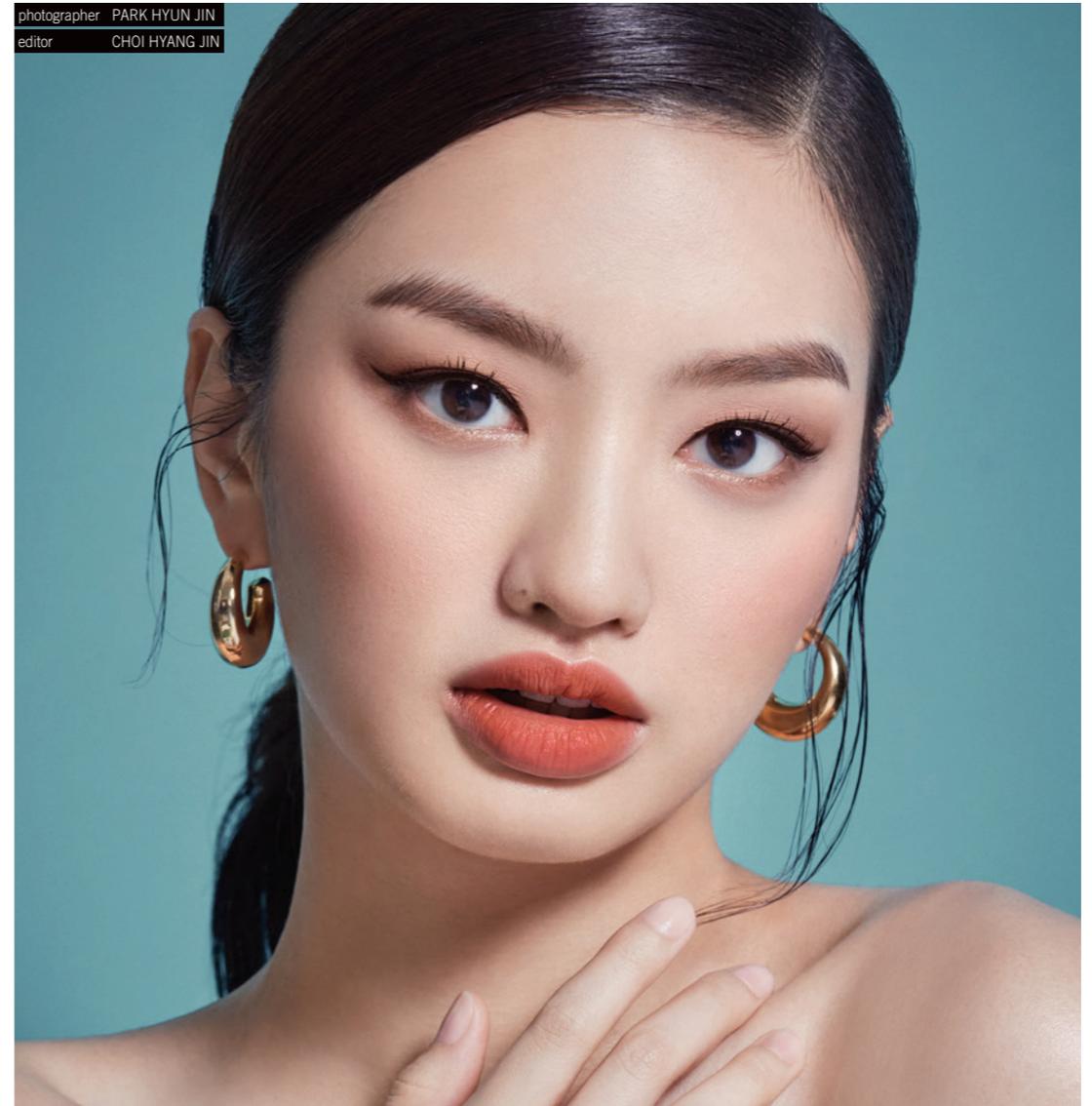
부드러운 텍스처에 은은한 윤기가 도는 루즈 홀릭 클래식. 그중에서도 제니가 첫손에 꼽은 건 소울 핑크. 피부 톤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핑크 계열 MLBB 컬러로 데일리 메이크업에 알맞다.



헤라 색도 듀오.
#02 이지고잉, 4g,
3만8천원.
헤라 루즈 홀릭 #100
소울 핑크, 3g, 4만원.

EYES 헤라 색도 듀오 #02 이지고잉 중 비스크 컬러를 눈두덩이에 넓게 펴 바른 뒤, 새들 브라운 컬러를 아이라인을 따라 발라 부드러운 음영감을 준다.

LIPS 입술에는 헤라 루즈 홀릭 #100 소울 핑크를 입술 선까지 짙 채워 바른다.



photographer PARK HYUN JIN
editor CHOI HYANG JIN

LOOK 2. MOD ORANGE

햇볕에 그은 듯 채도가 낮은 번트 오렌지 컬러는 이번 시즌에도 여전히 강세! 고양이 같은 캐츠아이 라인인 매치하면 도도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쉽게 완성할 수 있다.



헤라 색도 듀오.
#01 보니, 4g,
3만8천원.
헤라 루즈 홀릭 매트.
#437 모드 오렌지,
3g, 4만원.

EYES 헤라 색도 듀오 #01 보니 중 연한 피치 퍼프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 바르고, 펜슬 아이라이너로 눈꼬리가 길고 올라간 아이라인을 그려 부드러운 캐츠아이를 완성한다. LIPS 헤라 루즈 홀릭 매트 #437 모드 오렌지를 입술 윤곽선까지 짙 채워 발라 도회적인 느낌을 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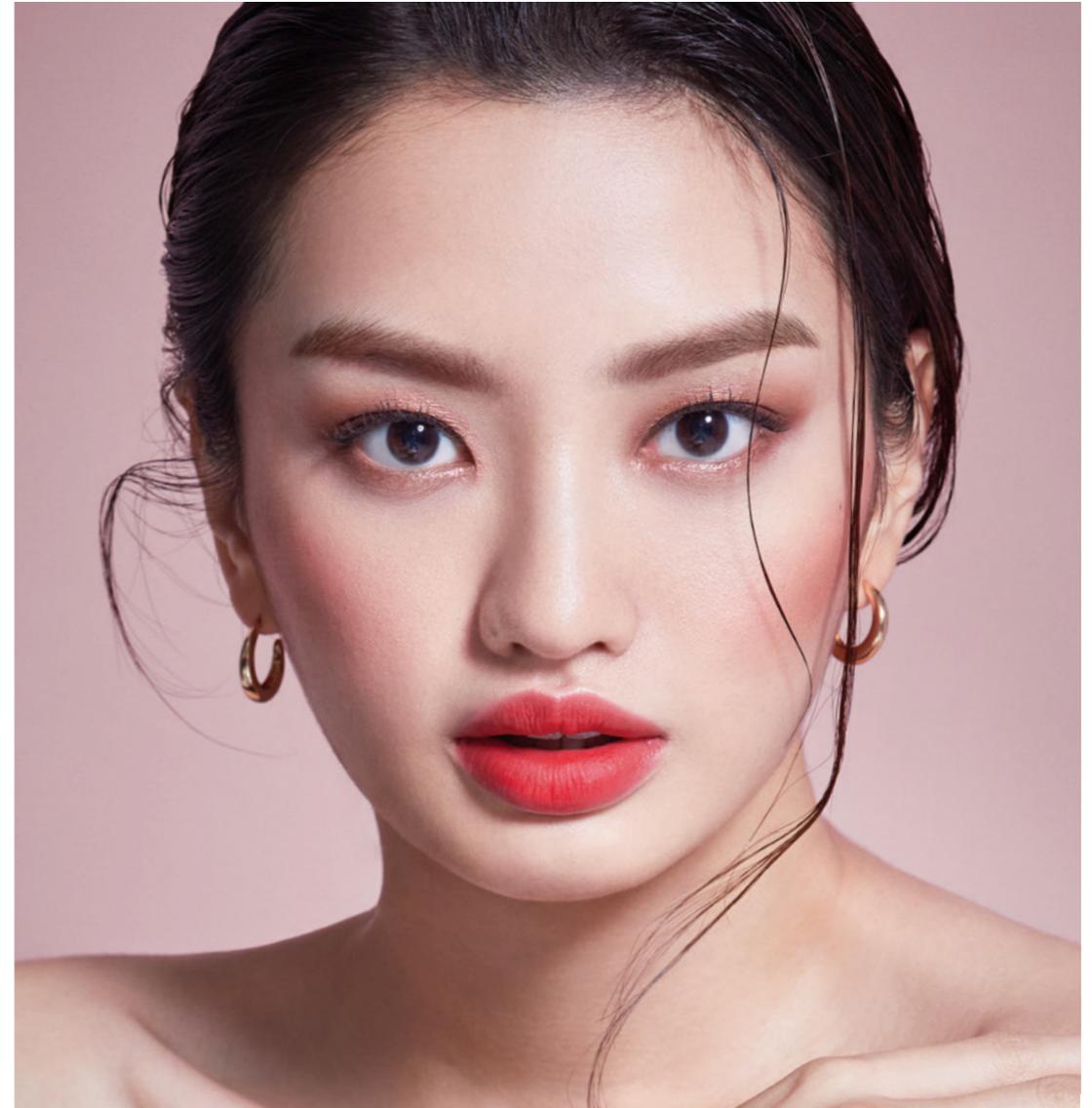
LOOK 3. SEXY NO.1

보랏빛이 감도는 은은한 핑크 립스틱은 핑크 아이섀도와 조합하면 여리디여린 소녀 느낌으로, 세미 스모키 아이와 매치하면 섹시한 느낌으로 변신하는 팔색조 같은 아이템이다.



헤라 섀도 듀오 #03
인튜이티브, 4g,
3만8천원.
헤라 루즈 홀릭,
#161 섹시 넘버원,
3g, 4만원.

EYES 펜슬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그린 뒤 헤라 섀도 듀오 #03 인튜이티브 중 진한 앰버 컬러를 아이섀도 브러쉬에 묻혀 아이라인 위에 덧발라 그레데이션으로 연출한다. **LIPS** 헤라 루즈 홀릭 #161섹시 넘버원을 입술 윤곽선까지 채워 바르면 이름 그대로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섹시한 룩이 완성된다.



LOOK 4. SOLID RED

오렌지색이 감도는 선홍빛 레드 립스틱과 시머리한 레드 브라운 아이의 조합을 시도해보자. 1980년대가 떠오르는 레트로풍의 트렌디한 메이크업이 완성된다.



헤라 섀도 듀오 #11
완성, 4g, 3만8천원.
헤라 루즈 홀릭 매트
#311 솔리드 레드,
3g, 4만원.

EYES 헤라 섀도 듀오 #11 원섬의 레드우드 컬러를 눈두덩이와 아랫눈썹 라인에 바르고, 마호가니 컬러를 아이라인을 따라 바른 뒤 그레데이션으로 연출해 깊은 눈매를 완성한다. **LIPS** 헤라 루즈 홀릭 매트 #311 솔리드 레드 컬러를 입술 중앙에 바르고 바깥쪽으로 그레데이션해 물들어듯 바르면 끝.

MODEL: JAMIE, MAKEUP: JAMIE YOON, KIM DONG HYUN (AMORE PACIFIC LUXURY MAKEUP TEAM),
HAIR: PARK CHANG DAE, STYLING: PARK MI KYUNG



에스테틱 전문가의 손길로 팽팽하게 당겨라

집에서도 에스테틱에서 관리받은 듯 팽팽하고 탄탄한 피부로 가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셀 사이언스 화장품 시장을 개척해온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이 우리의 꿈을 실현해줄 것이다.

photographer PARK HYUN JIN
 editor CHOI HYANG JIN

AGE AWAY HISTORY



헤라 셀 사이언스 기술의 집약체

화장품에 세포 과학 개념조차 도입되지 않았던 20여 년 전, 헤라는 세포 활성화와 커뮤니케이션이란 혁신적인 개념을 스킨케어에 도입한 안티에이징 제품, 에이지 어웨이를 선보였다. 기록적인 성공 이후로도 헤라는 세포 연구를 지속했고, 이를 제품에 적용해 360도 입체 안티에이징, 탄력 향상을 강화 등 단순한 주름 개선을 넘어서는 안티에이징 스페셜리스트로 진화해왔다. 그리고 2020년 피부 탄력의 핵심 성분인 콜라겐을 가득 담은 5세대 에이지 어웨이를, 2021년에는 방문 판매 고객만을 위한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을 내놓았다.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은 에스테티션들과 함께 제품을 개발해 마치 전문가의 관리를 받은 듯한 효과를 볼 수 있는 5단계 제품으로 구성된다.

탄력 관리 고리를 완성하는 고효능 성분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이 구현하는 리프팅 효과의 비밀은 핵심 성분에 있다. 카운셀러와 에스테틱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거쳐 엄선한 세 가지 핵심 성분은 BX 펩타이드, 리얼 콜라겐, EGF. 헤라가 선택한 BX 펩타이드는 탄력 강화에 탁월한 효능으로 화장품 원료로 인기 높은 펩타이드 중에서도 주름을 유발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막아 주름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주름을 팽팽하게 당겨 피부 주름 개선 효과를 선사한다. 또 하나의 성분인 리얼 콜라겐은 피부의 젊음을 담당하는 인체의 콜라겐을 99% 유사하게 모사해 피부에 보다 친화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피부의 탄력 코어를 탄탄하게 유지시켜준다. 마지막으로 노벨상까지 받은 원료인 EGF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피부 재생에 탁월한 성분으로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에는 쏘에서 배양해 안전하면서도 피부 재생 효과를 발휘하는 쏘 EGF가 함유되어 있다. BX 펩타이드로 당기고, 리얼 콜라겐으로 채우고, 쏘 EGF로 골리는 완벽한 탄력 관리 고리가 전문가에게 관리받은 듯 탱탱하고 탄탄한 피부로 가꿔주는 것. 여기에 전문 에스테티션의 노하우가 그대로 담긴 마사지 테크닉까지 더하면 집에서든 렉서리 에스테틱에서든 관리받은 듯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AGE AWAY AESTHETIC LINE-UP

피부를 고정해 주름 완화 효과를 주는 기술과 피부의 젊음을 담당하는 콜라겐을 모사하고, 쌀에서 추출한 EGF 성분을 함유한 5단계별 제품 라인업.

1. 각질 연화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 워터
과일 AHA 성분이 피부 표면의 각질을 유연하게 녹여 안티에이징 효과를 끌어올리는 스킨. 150ml, 5만5천원.

2. 탄력 균형 유지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 에멀전
3중 아미노산과 BX 펩타이드가 사슬처럼 배합되어 피부를 단단하게 다지고 탄력 기공기를 쌓아 올려주는 에멀전. 120ml, 6만원.

3. 효능 성분 주입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83 리포솜
인지질 성분의 다중층 리포솜 기술을 적용한 BX83%의 포물러가 피부 탄력을 잡아주는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라인의 핵심 세럼. 40ml, 12만원.

4. 눈가 탄력 강화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 아이크림
히알루론 보습막으로 건조한 눈가 피부를 정돈하며 리얼 콜라겐이 눈매를 쫘득하고 탄력 있게 잡아주는 아이크림. 25ml, 10만원.

5. 탄력 고정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 크림
농밀한 콜라겐 믹스 포물러로 피부를 촘촘하게 감싸 저하된 피부 탄력을 재정비하며 마무리해주는 크림. 50ml, 12만원.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을 선택해야 하는 3가지 이유

POINT 1

셀 사이언스 전문가 헤라가 20여 년간 쌓은 노하우가 담긴 역작

POINT 2

에스테틱 전문가가 고안한 방문판매 소비자만을 위한 라인

POINT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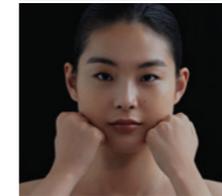
콜라겐, EGF 등 탄력 개선 성분을 최적으로 조합한 최첨단 성분

HOME AESTHETIC THERAPY

에스테틱 전문가가 알려주는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200% 활용 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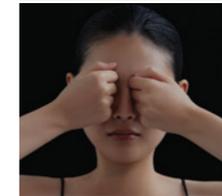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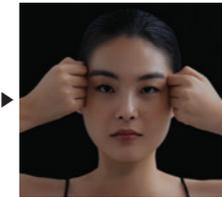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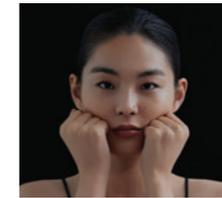


준비 세럼을 섞은 에멀전이나 크림을 손바닥에 충분히 덜어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펴 바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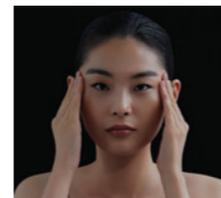


이마와 눈가 1. 손가락 끝으로 관자놀이 부분을 위쪽으로 끌어올린다. 이마 중앙 쪽으로 이동하며 반복한다. 2. 주먹을 쥐고 아래에서 위로, 세 부분으로 나눠 지압하며 위로 끌어올린다. 이마 중앙 쪽으로 이동하며 반복. 3. 아이크림을 눈 아래와 눈썹 뼈 부분에 바르고 약자로 가볍게 펴 바른다.

턱선 1. 엄지와 검지를 모아 턱 중앙부터 뼈를 따라 밀어 올린 뒤 같은 방향으로 꼬집듯이 마사지한다. 2. 손가락을 모아 아래턱부터 위로 끌어올린다. 얼굴 외곽은 관자놀이 쪽으로, 볼 가운데는 눈 아래로, 얼굴 중앙은 코 쪽으로 올리는 것이 포인트. 3. 주먹을 쥐고 위쪽으로 올리는 2의 동작을 반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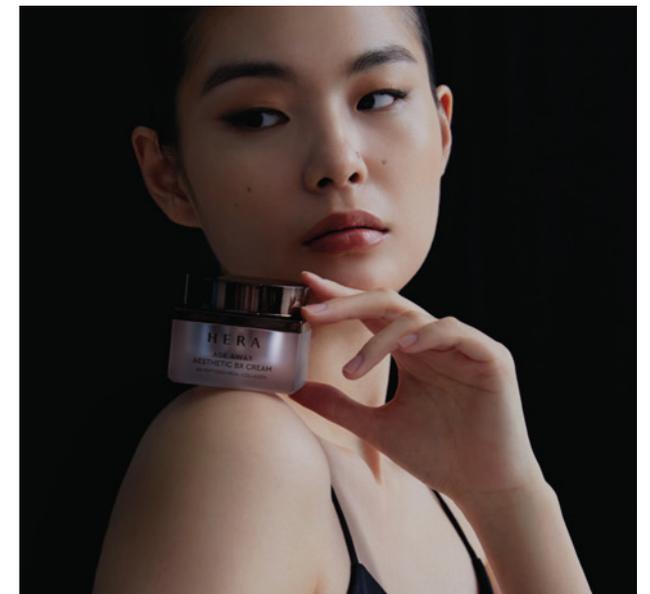


얼굴 중앙 1. 주먹으로 광대뼈를 위쪽으로 두 차례 밀어 올린다. 2. 주먹으로 광대뼈를 바깥에서 안쪽으로 밀어준다.



마무리 손바닥으로 얼굴을 지그시 눌러 손바닥의 열기로 제품을 잘 흡수시키면 끝.

▶ 세럼을 섞은 에멀전이나 크림을 듬뿍 바르고 마사지하면 에스테틱의 관리 효과를 볼 수 있다.



전문 에스테틱션의 노하우를 그대로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이 보다 특별한 이유는 방문 고객에게 특화된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카운셀러와 에스테틱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것.

먼저 에스테틱에서 가장 인기 높은 테라피 성분 중 펩타이드, 콜라겐, EGF 성분을 엄선해 전 라인에 담았으며 5단계 제품별로 특화된 성분까지 첨가했다. 먼저 피부결 정돈을 위해 에이지 어웨이 BX 워터에는 각질 연화 효과가 있는 AHA 성분을, 탄력 균형을 담당하는 에이지 어웨이 BX 에멀전에는 3중 아미노산을, 핵심 제품인 에이지 어웨이 BX 세럼에는 유효 성분이 보다 깊숙이 흡수되도록 고안된 BX83% 리포솜 솔루션을 담았다. 그리고 건조한 눈가를 위한 에이지 어웨이 BX 아이크림에는 히알루론산을 더했으며, 에이지 어웨이 BX 크림에는 리얼 콜라겐과 저분자 콜라겐을 더해서 배합해 피부를 농밀하게 감싸며 탄력을 고정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뿐만 아니라 피부에 산뜻하게 흡수되며 피부를 쫘득하게 감싸주는 탁월한 텍스처에 제품의 효능을 배가시켜줄 전문가의 마사지 노하우까지 전해 팽팽하게 당겨진 듯한 탄력 증진 효과를 볼 수 있다. 전문가의 마사지법은 카운셀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으니 참고할 것. **10**

PHOTOGRAPHER : CHOI MIN YOUNG, KIM SA YOON(제홍), MODEL: CHUN YE SEUL, MAKEUP: JAMIE YOON, KIM DONG HYUN(AMORE PACIFIC LUXURY MAKEUP TEAM), HAIR: PARK CHANG DAE, STYLING: PARK MI KYUNG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본연의 건강한 피부를 되찾기 위한 필수템

수분과 영양이 꼭 찬본연의 건강함으로 빛나는 피부로 가꿔줄 필수 스킨케어 제품이 있다.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뿐 아니라 고기능성 제품의 효과까지 복돋우는 설화수 에센셜 퍼펙팅 듀오.



설화수 자음수 퍼펙팅
사계절 피부를
편안하게 보호해주고
풍부한 보습감을
선사하는 젤 타입
스킨. 자음영양단™
외에 포공영 추출물을
함유해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켜준다. 125ml,
5만7천원.

설화수 자음유액 퍼펙팅
풍부한 안티에이징
성분이 탄력을
높여주는 영양 에멀전.
항산화 효능을 전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해송자유 성분이 피부를
윤기 있고 건강하게
가꿔준다. 125ml,
6만3천원.

추천 포인트

POINT 1
기초부터 탄탄하고
촉촉하게

POINT 2
고기능 케어를 위한
완벽한 준비

POINT 3
근본적인
피부 갈증 해소

설화수 자음수 퍼펙팅 & 자음유액 퍼펙팅

①

영양 탄력을 부여하는 자음영양단™

설화수 에센셜 퍼펙팅 라인의 전 제품에는 구기자, 흑두, 갈근, 꿀 등 피부에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는 귀한 원료를 선별해 담은 자음영양단™이 들어 있다. 그 결과 건조하고 힘을 잃은 피부에 영양과 탄력을 불어넣어 사계절 내내 건강한 피부로 지켜준다.

②

유·수분 균형을 맞춰주는 포공영, 해송자유 추출물

말린 민들레를 일컫는 포공영은 비타민과 미네랄, 필수아미노산과 무기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고, 잣에서 추출한 오일인 해송자유는 항산화와 보습 효능이 탁월해 무너진 피부 밸런스를 다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③

최적의 피부로 가꿔주는 탁월한 텍스처

설화수 자음수 퍼펙팅은 풍부한 보습감과 영양감이 느껴지는 도통한 젤 텍스처로 피부를 촉촉하게 채우고 감싸준다. 자음유액 퍼펙팅은 아모레퍼시픽만의 로션 제조 기술로 만들어 팔끔하게 흡수되며 피부를 다음 스킨케어를 위한 완벽한 상태로 준비시켜준다.

“좋은 스킨과 로션을 발라야 이후
무엇을 바르든 탁월한 효능을 충분히
발휘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제품.”

-윤희진 <마리끌레르> 뷰티 디렉터

“이 두 가지 제품만으로도
완벽한 보습과
영양감을 느낄 수 있다.”

-김상은 <마리끌레르> 뷰티 에디터

“도통한 젤 텍스처와 유연한
로션 텍스처가 피부를 놀라운
정도로 부드럽게 감싸준다.”

-이성진 뷰티 콘텐츠 디렉터

순하고 효과적인 남성 피부 솔루션

남자의 피부에도 순한 스킨케어기가 필요하다. 자연 유래 성분과 자극 없는 처방으로 건조하고

민감한 남자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는 완벽한 해결책이 되어줄 프리메라 맨 오가니언스 라인을 소개한다.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프리메라 맨 오가니언스

1

맞춤형 자연 유래 성분

프리메라 맨 오가니언스 트리트먼트 워터에는 수분 공급과 피부 진정에 탁월한 마로니에 씨앗과 캐모마일 추출물이, 모이스처라이징 에멀전에는 마로니에 씨앗과 센타우리 추출물이, 세뱀 컷 플루이드에는 복숭아 새싹 추출물과 다공성 파우더가 들어 있어 각각 피부에 최적화된 효과를 발휘한다.

2

유해성 논란 성분을 배제한 순한 레시피

프리메라의 다른 스킨케어 제품과 마찬가지로 남성 라인인 맨 오가니언스도 자극 없는 성분으로 이뤄져 있다. 파라벤, 광물성 오일, 합성색소, 인공 향 등을 배제해 남성 피부에 순하게 작용한다.

3

편안한 향기 테라피

베르가모트, 로즈메리, 라벤더, 제라늄, 로즈, 프랭킨센스(유향), 파출리가 어우러진 자연 유래 성분이 과하지 않고 편안한 남성적인 향기를 선사한다.

추천 포인트

POINT 1

프리메라만의 발아 에너지를 더한 자연 유래 성분

POINT 2

남성 피부에 최적화된 솔루션

POINT 3

민감한 피부를 위한 안심 처방



프리메라 맨 오가니언스 세뱀 컷 플루이드
피지 분비를 조절해 여드름성 피부를 가진 사람도 바를 수 있는 수분 공급 플루이드. 100ml, 3만5천원.

프리메라 맨 오가니언스 모이스처라이징 에멀전
남성 피부에 풍부한 수분을 공급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로션. 150ml, 3만원.

프리메라 맨 오가니언스 트리트먼트 워터
산뜻하게 흡수되어 수분감과 영양감을 동시에 채워주는 남성용 스킨. 180ml, 3만원.

“순한 성분에 가격도 착해 부담 없이 듬뿍 바를 수 있다.”
-포토그래퍼 박현진

“거북할 수 있는 인공 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남성적인 천연 유래 향으로 기분까지 편안하게 해준다.”
-헤어 스타일리스트 박창대

“끈적이지 않고 산뜻하게 흡수돼 거친 피부를 촉촉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아트 디렉터 김경남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주름 개선을 위한 레티놀 전문가

노화 방지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다루기 까다로운 성분 레티놀. 하지만 오랜 역사가 그 효능과 안정성을 증명하는 아이오페의 레티놀 제품이라면 믿을 수 있다.



아이오페 레티놀 포 링클 0.1%
함량 높은 레티놀 성분이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선사하는 안티에이징 세럼. 30ml, 9만원.

아이오페 레티놀 포 링클 0.3%
레티놀의 안티에이징 효과를 제대로 보고 싶은 소비자들을 위한 밤 전용 레티놀 세럼. 20ml, 13만원.

추천 포인트

POINT 1
레티놀 전문가의 맞춤 레시피

POINT 2
탁월한 주름 완화 효과

POINT 3
레티놀 안정화에 적합한 산소 차단 패키징

아이오페 레티놀 포 링클

①

자타 공인 레티놀 전문가

1994년 레티놀 안정화 연구에 돌입해 1997년 국내 최초로 순수 레티놀 제품을 출시한 이후, 국내 특허출원 25건, 해외 특허출원 22건을 기록하고 국내외에서 여섯 차례 수상하는 등 놀라운 업적을 이룬 아이오페의 레티놀 제품. 그 역사와 성취가 아이오페의 레티놀 기술력을 증명한다.

②

최적의 고함량 레티놀

레티놀 안정화 기술과 피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끝에 기존 대비 0.1%, 0.3%라는 고함량 레티놀을 담아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제공한다. 여기에 펩타이드 5종 콤플렉스를 더해 안티에이징 효과를 배가했다.

③

0.1%, 0.3% 맞춤형 함량

아이오페 레티놀 포 링클은 레티놀 제품 사용 경험 유무와 피부 민감도나 스킨케어 습관에 따라 레티놀 함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0.1%와 0.3%로 고안되었다. 레티놀 제품을 처음 쓰는 초보자라면 0.1%, 레티놀 포 링클 0.1%를 4주 이상 사용했거나 레티놀 제품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0.3%를 밤에만 바를 것을 권한다.

“인터넷에 올라온 간증에 가까운 수많은 사용 후기를 보면 구매하지 않을 수 없다.”

-프랑스 에디터 안새롬

“아이오페만큼 효과적이고 피부에 자극이 적은 레티놀 제품은 전에 본 적이 없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김희진

“단 2주만 발라도 이마 주름과 눈가 잔주름 등이 확연히 없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최향진

파츨리, 비 온 뒤 냄새

꽃을 만난 흙의 향기, 구말 파리 페뉴 드 스와레에게 매료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writer JOYAROMA

최근 아로마테라피가 효능을 인정받으며 유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약용으로도, 식용으로도 허브를 사용하고 연구한 문화와 역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나마 익숙한 라벤더, 로즈메리, 민트 같은 허브들 역시 구체적인 향과 효능보다는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게다가 몇몇 잘 알려진 종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허브는 어떤 향을 띠는지조차 상상이 되지 않는다. 파츨리 역시 이런 식물 중 하나.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열대지방에서 주로 자라는 파츨리는 다년생 허브로 잎을 말려 수증기 증류법으로 향과 오일을 추출한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음식에도 널리 애용하며 아로마테라피에 활용하면 항염, 항균, 특히 통증 완화 효능이 뛰어나고 해충을 쫓는 데도 도움이 된다. 파츨리 향은 한 가지만 맡으면 전체적으로 묵직하면서 흙냄새가 느껴지는데, 촉촉한 이끼에서 날 법한 향이 나타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탄 냄새를 맡을 수 있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후각만큼 예민한 감각은 없다. 사람마다 느끼는 향이 천차만별이고, 이를 표현하는 것 또한 제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앞서 묘사한 파츨리 향의 특성을 누구나 느낄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파츨리 향을 맡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감지하는 것이 비 온 뒤에 나는 냄새라고 한다. 비 오는 날이면 느껴지는 자연의 향기가 있지 않은가! 향수 전문가들이 '모시하다(mossy)'고 표현하곤 하는데, 파츨리는 허브 중에서도 이런 느낌이 강하다. 이런 강렬한 향의 매력 때문에 파츨리는 수세기 동안 향수의 원료로 사랑받고 있다. 콧 집어 뭐라 말할 순 없지만 풋풋한 풀 냄새와 촉촉한 흙냄새를 담은 이 향은 시대를 막론하고 전 세계 조향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특히 파츨리 고유의 '흙 비린내'에 매료된 과학자들은 본격적으로 이 향을 연구해 동물이나 식물이 바위 틈에 묻혀 있다가 비를 만나면서 나오는 향을 화합물로 만들어 '페트리코(petrichor)'라고 이름 붙이기도 했다. 파츨리는 이 페트리코 향보다는 허브 특유의 풍성하고 싸한 느낌이 더 강렬하다. 단일 향으로는 사람에게 따라 호불호가 뚜렷하게 갈리고 다른 향을 강하게 지배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는 우디, 플로럴, 프루

티 계열 꽃과 과일의 향조와 어우러질 때 진가를 발휘한다. 달콤하고 가벼운 향보다 여운이 오래 남는 향을 좋아한다면 파츨리를 베이스 노트나 미들 노트에 사용한 향수가 알맞다. 마치 비 온 뒤 숲속이나 시골길을 걷고 있을 때 바람이 살랑 불어오면서 코끝을 스치는 장미 혹은 라일락 꽃향기. 딱 이런 향기가 바로 파츨리 플로럴 계열 향수의 향이라고 할 수 있다. 파츨리를 담은 향수로는 파츨리에 각각 로즈, 재스민, 우드, 앰버를 더한 조합이 인상적이다. 특히 구말 파리의 페뉴 드 스와레 오드퍼퓸은 파츨리를 베이스 노트에 사용하면서 미들 노트에 아이리스, 로즈, 재스민 등 다양한 꽃을 더하고 톱 노트로는 블랙 커런트와 베르가모트를 사용해 처음 뿌리면 싱그러운 향이 난다. 마치 코스 요리의 애피타이저를 먹었을 때처럼 입 안에 군침이 돌면서 어쩔지 식욕이 도는 느낌이다. 하지만 매력적인 이브닝드레스에서 영감을 받은 깃털을 풍성하게 장식한 보랏빛 보틀에서 상상할 수 있듯 시간이 갈수록 관능적인 매력을 뽐내준다. 특히 아이리스의 파우더리하면서 짙은 플로럴 향을 지나 파츨리, 캐러멜, 머스크, 가죽 향의 베이스 노트에 이르는 잔향에서는 매우 관능적이면서 어딘가 이국적인 느낌마저 든다. 개인적으로 처음 페뉴 드 스와레 오드퍼퓸의 향을 맡는 순간 수년 전 다녀온 출장지가 떠올랐다. 좀처럼 비가 오지 않던 파리의 여름날, 오전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바람에 파리 외곽으로 나가는 길이 차들로 몹시 막혔다. 어렵게 찾아간 파리 외곽의 한 샤토(고성).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향기가 페뉴 드 스와레 오드퍼퓸의 향과 비슷했다. 이브닝드레스는 아니지만, 다리를 감싸는 롱 실크 스커트에 제법 높은 하이힐을 신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날은 샴페인을 마시지 않아도 꽤 많은 양을 마신 듯 달콤한 느낌이 들었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프랑스 출장은커녕 어떤 외유도 없었지만, 연말을 파티 없이 보내는 대신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한 새해맞이 홈 파티에 갈 때는 페뉴 드 스와레 오드퍼퓸을 뿌려야겠다. 적당히 짙은 스모키 메이크업과 실키한 드레스 차림으로 스파클링 파티는 샴페인과 달콤한 크림브륀레로 시작하는 코스를 마주하면 더욱 좋을 테지. **TIP**

WRITER: 유쾌한 아로마 (@JOYAROMA)
PHOTOGRAPHY: WWW.GETTYIMAGEKOREA.COM, CHOI SEUNG HYUK(지훈)



TIP

구말 파리
페뉴 드 스와레 오드퍼퓸,
50ml, 19만8천원.

겨울철에는 피부 속 수분이 급격하게 줄어들며 체온이 쉽게 떨어지고 근육이 뭉치며 전체적인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면역력도 저하된다. 이럴 때 집에서 가장 쉽게 몸의 피로를 풀고 체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반신욕.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은 물론, 혈액순환을 촉진해 체온을 높이고 면역력 증진 효과도 있다. 이 밖에도 신체 기능이 활성화되며 체내 노폐물이 배출되고 세포 활동도 원활해져 가벼운 운동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반신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각질 제거가 필수. 피부 표면의 묵은 각질을 없애고 피부를 매끄럽게 하면 삼투압 현상으로 체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각질이 떨어지며 마사지를 하면 추위로 수축됐던 근육 긴장도가 낮아지고 혈액순환도 촉진된다. 혈액에 쌓인 젖산을 배출하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데 적당한 수온은 체온과 같은 36℃ 이상 45℃ 이하로,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20~30분간 반신욕을 즐기는 것이 좋다. 단, 입욕 전 격한 운동을 하거나 과음을 한 경우 급격한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반신욕을 하는 시간이 지루하다면 아로마 향초나 아로마 에센스가 블렌딩된 바디 제품을 사용해 온 것처럼 오감을 만족시키는 입욕을 즐겨도 좋다. 반신욕의 효과를 높여주는 뷰티 아이템과 함께 지금 바로 바디 디톡스를 경험해보자.

바디 디톡스를 위한 반신욕

움츠러든 몸의 감각을 깨워 스트레스를 풀어줄 시간이다. 체온을 올려 면역력을 강화하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일석이조 바디 디톡스, 반신욕에 대해 알아봤다.

editor AHN SAE ROM



PHOTOGRAPHY: WWW.GETTYIMAGEKOREA.COM, KIM SA YOON(제음)

BEAUTY TIP

반신욕의 효과를 높이는 뷰티 아이템

1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라

반신욕을 하기 전 각질을 제거하면 체내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입자가 고운 스크럽으로 몸의 말단인 손과 발부터 몸의 중앙 심장 부위까지 쓸어올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는 건 물론이고 각질 제거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다독여줄 아로마 블렌딩 스크럽을 사용하면 근육의 긴장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2 코끝으로 즐기는 향 테라피

반신욕을 할 때 뇌를 자극해 심신 안정에 도움을 주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바로 향. 허브 계열이나 플로럴 계열 향조를 지닌 원료는 불면증 해소와 심신 안정에 효과가 있다. 입욕 전 샤워 젤로 충분히 거품을 내 바디 브러시로 몸을 마사지하며 세정한 뒤 아로마테라피를 받는 듯 은은한 향을 느끼며 반신욕을 해볼 것. 잔향을 오래 즐기고 싶다면 반신욕 후 같은 향의 바디 크림을 바르는 것이 좋다.



헤라 지일 블루밍 퍼퓸드 바디로션, 250ml, 5만원. 바르자마자 피부에 빠르게 흡수돼 끈적이지 않아 깔끔하다. 헤라 지일 블루밍 퍼퓸드 샤워젤, 270ml, 4만7천원. 로즈 추출물과 히알루론산을 함유해 촉촉하게 씻어주고 은은한 잔향을 남기는 샤워젤.

3 촉촉한 보습은 필수

겨울철 피부 관리의 핵심은 두말 없이 보습이다. 반신욕을 한 직후에는 체온이 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분 증발 속도도 빠르다. 그러므로 반신욕 후 몸의 물기가 마르지 않은 촉촉한 상태일 때 보습 크림을 손에서 녹여 부드럽게 발라 2중 수분막을 만들어주면 효과적이다. 수분이 빨리 날아가거나 피부가 딱기는 약건성이라면 빠르게 흡수되는 바디 크림을 두 번 바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10**



프리메라 망고 버터 컴포팅 바디 워시, 380ml, 2만8천원. 보습 효과가 탁월한 망고 씨드 버터 성분을 함유해 몸을 촉촉하고 편안하게 세정할 수 있다. 프리메라 망고 버터 컴포팅 바디로션, 380ml, 3만2천원. 망고 씨드 버터와 호호바씨 오일을 함유해 피부에 수분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바디 크림.



ABC 주스, 정말 좋아?

디톡스주스 혹은 기적의 주스로 불리며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ABC 주스.

관련 정보를 워낙 많이 접하다 보니 궁금증이 생긴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photographer PARK JAE YOUNG

editor LEE SUNG JIN

그간 몸에 이로운 채소나 과일을 갈아 만든 주스 레시피는 수없이 많았지만, ABC 주스의 인기는 사뭇 다른 것 같다. 주스 재료의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던 여느 때와 달리, 브랜드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ABC 주스만 해도 꽤 많은 데다 간편하게 물에 타서 마실 수 있는 분말 형태의 제품까지 나온 상황. 이렇듯 차원이 다른 인기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재료를 구하기 쉽고 맛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집 근처 마트에 가면 바로 살 수 있는 사과(apple), 비트(beet), 당근(carrot)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데다 절로 눈살이 찌푸러지는 여느 주스들과 달리 맛도 꽤 있으니 누구나 부담 없이 시도할 만하다. 효능도 상당하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디톡스와 원활한 배변 활동. 해독 효과가 뛰어나 체내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없애주고, 한 잔에 성인 일일 권장량의 절반에 달하는 10g 정도의 식이섬유를 함유해 배변을 돕는다. 사과에 든 우르솔산이 지방을 효과적으로 태우고 배출하도록 돕고, 비트에 든 안토시아닌이 지방을 분해하는 지방 억제 호르몬을 만들어내며, 당근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비타민 C 성분이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춰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주변에서 ABC 주스를 장복해봤다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언급하는 최고의 효과 역시 쾌변과 뱃살 감량. 통상적으로 주스를 마신 뒤 30분~1시간 이내에 화장실에 가는 경우가 많으니 거짓말은 아

닐 터.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여기에 운동을 더하면 극적인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비단 체중 감량 효과 외에도 면역력 강화, 피부 관리, 눈 건강 개선, 기억력 증진, 생리전증후군 완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니 누구나 꾸준히 마셔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건 분명하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믹서에 씨를 뺀 사과 1개와 비트 3분의 1개, 당근 1개를 넣고 물 200mL를 부어 갈아 마시면 끝. 걸쭉한 죽처럼 건더기가 꽤 많은데, 아침 공복에 먹으면 배도 든든하고 흡수율도 높일 수 있다. 뻑뻑한 느낌이 싫어 착즙기에 갈아 마시면 장운동을 촉진하는 불용성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없어 효과가 다소 줄어들기 때문에 믹서에 갈아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때 비트의 양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트는 옥살산을 함유해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장에 돌이 생기는 신장 결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하루 반 개 이상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주스 역시 많이 마실 경우 설사가 나거나 속이 더부룩한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아침에 한 잔 마시는 정석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잔만 마시는데도 배가 더부룩하다면 비트와 당근을 살짝 데친 후 갈아 마시는 방법도 있다. 만약 알려진 효능과 달리 변비가 생겼다면 수분보다 불용성 식이섬유 섭취량이 더 많은 것이 원인으로 물을 충분히 마시면 증상이 해소된다. ①



RECOMMEND

렌틸 수프
셰프의 친할머니가 알려준 레시피를 바탕으로 한 독일 가정식 수프. 렌틸콩과 베이컨, 소시지, 각종 채소를 넣고 푹 끓여 만든다.

더 베이커스 테이블

약 10년 전 경리단길 인근에 문을 연 이후 올해 초 삼청점을 새롭게 마련한 베이커리 겸 브런치 카페. 브라트부르스트와 슈니첼 등 독일 셰프가 선보이는 현지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수프 또한 이곳의 인기 메뉴로, 특히 '렌틸 수프'와 '콩 수프'는 셰프의 친할머니가 전수한 레시피를 기반으로 만든다.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비롯해 다섯 종류로 준비하는 '오늘의 수프'도 꼭 맛볼 것.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131(삼청점)
문의 02-725-0777

다정한 수프 한 그릇

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수프 한 그릇.

editor KIM SUN HEE



수퍼

3년여 전 오픈한 이래 꾸준히 소문이 나고 있는 '수프 맛집'. 영양이 풍부한 수프 한 그릇으로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손님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대여섯 가지 수프를 고정적으로 판매하며 2020년 하반기에 시즌 메뉴로 '할머니 호박범벅'을 출시했다. 강파뉴, 푸시리, 크래커, 밥을 취향에 따라 추가할 수 있는데, 더 든든한 식사를 원할 땐 샌드위치와 음료도 포함된 세트를 주문하면 된다.

RECOMMEND

닭고기 야채 수프
맑은 육수에 푹 고은 닭고기와 채소를 넣고 채소가 부드러워질 정도로 오래 끓인다. 밥과 특히 궁합이 좋다.
할머니 호박범벅
찐 호박, 고구마, 강낭콩을 으개 되직하게 만든 비건 스튜. 쫄깃한 식감을 내기 위해 새알심을 얹고 팔과 호박씨 등을 더한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삼계로 20
문의 02-711-2518



차우더 에스

뉴욕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수프를 즐겨 먹었던 대표가 추억을 담아 오픈한 공간. 수년간 레시피를 연구하며 직접 만들어 맛본 수프를 내어준다. 현지 방식을 따라 각종 재료를 듬뿍 넣고 소스와 스톡도 해외에서 공수하는데, 우리 입맛에 맞도록 짠맛과 느끼한 맛은 조금 덜어냈다. 사워도우 또는 샐러드를 같이 주문하거나 수프, 바게트, 커피로 구성한 세트를 선택할 수 있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65-3
문의 02-795-2030



RECOMMEND

굴라쉬
소고기, 파스닙, 양파, 감자 등을 알차게 넣은 '헝가리식 육개장'. 수입 파프리카 가루로 풍미를 돋우고 한쪽에 사워크림과 바게트를 올린다.
이탈리언 웨딩 수프
미트볼, 튜브 모양의 작은 파스타 디탈리니, 시금치와 당근 등 채소를 넣고 담백하게 끓인 후 치즈를 더한다.



RECOMMEND

초당 옥수수 수프
양파, 감자, 옥수수를 같이 볶은 뒤 생크림과 우유를 넣어 간다. 따뜻하게 끓인 후 우유 거품과 옥수수를 올린다.
칠리 콘 카르네
다진 소고기, 잘게 썬 채소, 매콤한 향신료 등을 함께 넣고 끓여 만드는 스튜. 치아바타나 나초를 곁들이면 더욱 좋다.



선셋 스위밍 샌드위치

석양에 물든 해변을 떠올리며 기획한 카페. 수영 후 가볍게 먹기 좋은 샌드위치와 커피 그리고 수프를 주로 판다. 오픈 초반부터 인기를 끈 '초당 옥수수 수프'는 고정 메뉴로 지정했고 시즌마다 새로운 수프도 선보이는 중이다. 최근 출시한 '칠리 콘 카르네'는 치아바타와 나초도 제공해 식사 대응으로도, 이곳에서 마실 수 있는 와인 안주로도 제격이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70길 23
문의 02-544-7676



히포크라테스 수프

항암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히포크라테스 수프'의 명칭을 상호로 사용한 곳. 많은 사람들이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스스로를 챙기게 되길 바라며 안암동과 제기동에 지점 세 곳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히포크라테스 수프의 레시피를 기반으로 한 '히포크라테스 스튜', 최근에 출시한 '흑임자 수프' 등 모든 메뉴는 천연 재료로 만들어 이곳에서 구운 유기농 빵도 같이 제공한다. **D**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로 138(고대정점)
문의 02-923-3932



RECOMMEND

흑임자 수프
엄선한 흑임자를 믹서에 곱게 간 후 불린 찹쌀, 생우유, 동물성 생크림 등 인공적인 가공물 거치지 않은 재료를 더해 만든다.
히포크라테스 스튜
마늘, 양송이버섯, 파프리카, 양배추 등 10여 가지 채소를 각각 천연 버터에 볶은 후, 닭 가슴살과 함께 육수에 넣고 끓인다.

책을 공유하는 행복

얼마 전 예쁘고 재미있는 책들이 가득한 '서재'가 문을 열었다. 신발 디자이너 김리온 대표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것으로

photographer HAN DONG WON
editor LEE SUNG JIN



채운 그곳에서 책을 통해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

얼마 전, 성수동에 또 하나의 흥미로운 장소가 문을 열었다. 이름은 '리온서재'. 독립 서점이나 출판사를 연상시키는 이곳의 주인은 도서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이가 아니라 신발 브랜드 '신'의 김리온 대표다. 예쁘면서도 편안한 신발로 두터운 마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는 신발 브랜드 대표가 구두 전시장이 아니라 서재를 오픈한 이유가 궁금해 찾아가봤다.

한 건물 3층에 동지를 트 리온서재는 들어서서 순간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인 것 같은 기분을 안긴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늑하고 예쁘다'는 것. 구석구석 탐나는 책과 그림이 가득한데, 해외 서점에서 본 알록달록한 팝업 북부터 페이퍼 아티스트의 섬세한 작품을 담은 작품집, 삶에 대한 사색을 담은 에세이까지 그 종류가 꽤 방대하다. '어린 시절부터 늘 책을 가까이 했어요. 아버지 옆에는 항상 큰 옥편과 사전이 펼쳐져 있었는데, 이젠 제가 그걸 물려받았답니다. 어머니도 책을 많이 읽으셨는데, 그 곁에서 본 <조선왕조 오백 년>은 지금도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조금 크고 나니 소중히 모은 용돈으로 서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책을 고르는 시간이 무척 행복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취향에 맞는 책을 보고 모으기 시작했죠. 이



@leoon_kim
김리온

2005년부터 신발 브랜드 신(SYNN)을 운영하며 예쁘고 편안한 신발을 선보여왔다. 자신이 만든 신발뿐 아니라 예쁘고 보기 좋은 것, 그리고 귀여운 딸 서연이의 사진이 가득한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팔로어가 2만7000명이 넘는 정도로 인기가 좋다. 지금은 자신이 소장하는 책을 소개하는 책장 계정(@leoon_bookshelves)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젠 그 책들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 이곳을 오픈했어요."

한결같은 책 사랑으로 짬 날 때마다 국내외 서점 사이트를 뒤지며 마음에 드는 책을 구입하길 수년째. 그렇게 모은 책은 한 방의 세 벽면을 채우고도 남았고, 그것이 리온서재의 시작이 됐다. 서재 오픈과 동시에 상당수 책을 이곳으로 옮겼는데도 남편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불평할 정도이니 컬렉션이 얼마나 방대인지 짐작될터. 소장한 책이 몇 권인지 세어본 적은 없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으로 미뤄볼 때 1만 권이 훌쩍 넘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한다. 10여 개 서점 사이트 장바구니마다 가득 담긴 책과 '하루에 책을 5권 이상 사지 말자'는 다짐에서도 그녀의 책 사랑이 느껴진다. 소장하는 데 의의를 두지 않는 미니멀리스트를 꿈꾸지만, 책과 예술 작품에는 그 잣대를 적용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도 신기하다. 그나마 5년 전부터는 책과 작품을 나누는 데 힘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책은 그녀 주변을 채우고 있다.

이쯤 되면 궁금하다. 과연 그녀는 이 책들을 다 읽었을까? 이 질문에 그녀는 다 읽은 책도, 아직 읽지 않은 책도, 읽다가 그만둔 책도 있다고 말한다. "재미없는 책, 왠지 보지 않게 되는 책에는 미련을 두지 않아요. 책장이 넘어가지 않는 책을 공공대며 끌어안고 있지 않는 거죠. 볼 책이 훨씬 더 많으니까 다른 책을 보면 돼요. 그렇게 미뤄두다 보면 언젠가 그 책을 다시 찾게 되더라고요." 자투리 시간을 합쳐 매일 3시간 남짓 책을 읽는데도 책을 읽는 속도가 구입하





는 속도에 못 미쳐 초조할 때도 있다고 한다. 그럴 때는 그림이 많아서 부담 없이 읽게 되는 책 위주로 구매하며 속도를 조절한다.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까? “타고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글을 읽는 것은 물론이고 예술 작품이나 소품 등 예쁜 것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담긴 게 책이더라고요. 작가가 글을 쓰고, 디자이너가 책을 만드니까요. 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제게 책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준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이렇게 서재까지 오픈했지만, 사실 몇 해 전만 해도 그녀는 독서를 즐기는 성향을 밝히길 꺼렸다. 자신의 취향을 누군가가 파악하는 것도 달갑지 않았고, 책 속 세상에 파묻혀 있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오라는 오해 섞인 참견의 말을 듣는 것도 싫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개인 SNS에 올린 책 사진과 거기에 달린 ‘이 책이 궁금하다’는 댓글이 시작이 되어 몇 해 전에는 서적 전문 계정을 오픈했다. 그리고 선뜻 사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나누면 좋을 책들, 누구나 보면 좋을 책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간단한 소개가 그녀의 말을 대신한다. ‘재밌어서, 책, 함께 보아요, 예쁜 책, 좋은 책’.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무엇이라도 나누고 싶은 심정으로 서재를 오픈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남다른 책 사랑은 그녀의 딸 서연이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필독서는 물론이고, 해부학 책 등 아이가 보기에 어려울 법한 책들도 골잘 읽는 것을 보면 책을 친근하게 여기는 게 분명하다. 그러나 독서를 강요하거나 책 읽는 습관을 권하는 대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할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다 보면 좋아하는 책을 발견할 테고 그것이 서연이 삶의 밑거름이 될 테니까.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리온서재의 또 다른 축을 이루는 건 그녀의 아이덴티티를 대변하는 신발과 가방이다. 신발과



가방도 취향을 보여주는 요소이니 보여주는 직원들의 권유에 회사와 자신의 콜라보레이션 형태로 함께 전시하게 됐다. “어떤 신발을 신어도 발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편한 신발을 만드는 데 집중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쁘다’는 말 대신 ‘편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이 칭찬 같지 않았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바람이 고객들에게 잘 전달된 것 같아서 위안이 돼요.” 최근 그녀가 주력하는 것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좀 더 편안하고 실용적으로 디자인한 신발들. 슈즈 브랜드 신을 대표하는 포멀하고 화려한 구두 대신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데 중점을 두고 만든 신발들은 꽤 인기가 좋다. 그리고 ‘편안한 착용감’을 가장 큰 장점으로 손꼽는 그녀의 신발들은 포근한 이 공간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 “전 서점에 가면 살짝 흥분돼요. 기분이 무척 좋고 벅차거든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도 설레는 마음을 안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해외 직구를 통해 오랜 기다림을 견디며 어렵사리 구한 책들이 상하는 걸 걱정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김리온 대표. 시즌별로 다른 책들을 채울 예정이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기본 좋은 설렘과 행복감이 전해졌다. **LD**

김리온 대표가 최근 감명 깊게 읽은 책들



〈고맙습니다〉
올리버 색스 지음,
알마 퍼냄
뇌신경학자 올리버 색스가 죽기 전에 남긴 말들을 엮은 책. 인간을 사랑하는 그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감동을 준다. 한동안 지인들에게 많이 선물한 책이다.



〈나, 꽃으로 태어났어〉
엄마 줄리아니 지음,
비룡소 퍼냄
짧은 글로 힐링을 선사하는 팝업 북. 마음을 감싸주는 글도 물론 좋지만, 흑백의 플랫 북에 색색의 꽃들을 팝업 형태로 배치한 아이디어가 참신해서 기억에 남는 책이다.



〈Trees〉
브뤼스 알베르 외 지음,
까르피에 현대미술재단 퍼냄
꽃이나 초목 등 생명체에 관심이 많은 김리온 대표의 심미적 욕구를 충족해준 책. 나무를 너무나도 아름다운 방식으로 보여준다. 어렵게 해외 직구에 구한 책이니 꼭 보길 권한다.

STYLING: LEE GYEONG WON

#AbsoluTea™
#입체리뉴얼안티에이징
#럭셔리홈케어앰플



생생한 제품 평가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인텐시브 리뉴얼 앰플을 사용해본 품평단 10인의 솔직한 소감.

photographer CHOI MIN YOUNG
editor AHN SAE ROM

@babyaji

겨울철 건조한 내 피부를 책임지는 #아모레퍼시픽 #타임레스폰스 #앰플. 1제와 2제 섞어서 더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피부에 사르르 흡수되는 제형은 물론 고급스러운 향기도 일품이에요.



@smilejoanna22

피부 노화의 흔적부터 미래의 노화 요소까지 모두 다스려주는 타임 레스폰스 인텐시브 리뉴얼 앰플로 관리해봤어요. 피부 탄력과 보습 등 겨울철 피부를 둘러싼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주는 똑똑한 앰플이에요.

@ahliswell

아모레퍼시픽의 럭셔리 안티에이징 앰플. 입체 효과를 느낄 수 있답니다! 옥외 후 나만의 시간에 잊지 않고 꼼꼼하게 바르고 있습니다.



@heosugi

세상 촉촉하고 쫘득해지는 피부! 피부가 쉽게 건조하고 균형이 무너지기 쉬운 이때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인텐시브 리뉴얼 앰플로 피부 건강을 지키세요.



@dkdud5070

바른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팽팽하게 리프팅되는 느낌이 들어요. 주름은 확실하게 개선될 것 같네요. 안티에이징도 타이밍.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앰플을 경험하고 동안 피부 얻을게요.



@jennyworld

써보고 깜짝 놀란 앰플이에요. 2배 강력해진 EGCG 파우더와 앰솔루티 앰플이 섞여 피부 탄력만큼은 확실하게 잡아주네요.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 시간을 돌려보고 싶어요.



@e_k.closet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앰플로 나도 이제 더 늦기 전에 관리해보려고요. 피부에 쫘득하게 발리면서 촉촉하게 마무리되니까 메이크업이 들뜨는 느낌 없이 잘 먹고 향까지 좋아 홈 에스테틱 받는 느낌이에요.



@9.1.0.7.3.0

17년, 22만8천 번 실험했다는 #아모레퍼시픽 #타임레스폰스 #앰플. 2배로 강력한 EGCG 파우더와 앰솔루티 앰플을 내 얼굴에 고스란히 흡수시켜봅니다. 꾸준히 바르면 젊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질 수 있겠죠?



@2_eun_ggg

저처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라면 더더욱 추천하는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앰플! 한 번씩 바를 때마다 줄어드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효과가 만족스러워요. 피부결, 탄력, 보습 등 피부를 총체적으로 개선해주는 #안티에이징 앰플이에요.



@insta.ara

타고난 피부의 한계를 넘어서는 차원이 다른 안티에이징이 가능한 아모레퍼시픽 #타임레스폰스 #앰플. 4주간 사용하며 피부 변화를 기대 중이에요. #안티에이징에 부쩍 관심이 가는 계절이라 더 애정을 기울이는 제품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인텐시브 리뉴얼 앰플. (0.6g+7ml)×4EA, 62만원.

미리 준비하는 명절 선물

다가오는 설,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알찬 선물을 미리 소개한다.

editor CHOI HYANG JIN

HERA



헤라 시그니아 세럼 스페셜 기프트 세트

헤라의 대표 안티에이징 라인인 시그니아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세트. 크림과 에멀전을 중심으로 구성된 세트도 준비되어 있다. 시그니아 세럼 50ml + 시그니아 크림 30ml + 시그니아 워터 20ml + 시그니아 에멀전 20ml + 시그니아 앰플 1개 + 시그니아 아이트리트먼트 5ml로 구성. 25만원.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기획 세트

방판 고객만을 위해 탄생한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세트. 리얼 콜라겐이 피부 속부터 탄탄하게 채워준다.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 워터 150ml +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 에멀전 120ml +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83 리포솜 5ml +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 크림 5ml로 구성. 11만5천원.



헤라 아쿠아블릭 2중 세트

건조한 피부를 수분으로 채워주는 완벽한 솔루션. 아쿠아블릭 에센셜 워터 150ml + 아쿠아블릭 에센셜 에멀전 120ml + 아쿠아블릭 에센셜 워터 30ml + 아쿠아블릭 에센셜 에멀전 30ml + 히아루론이 마스크 2매로 구성. 8만8천원.



헤라 옴 스페셜 2중 기획 세트

남자에게 꼭 필요한 제품만을 알차게 담은 세트. 옴 에센스 인 스킨 125ml + 옴 에센스 인 에멀전 110ml + 옴 에센스 인 스킨 20ml + 옴 에센스 인 에멀전 20ml + 옴 블랙 퍼펙트 플루이드 20ml로 구성. 8만원.



헤라 옴 블랙 퍼펙트 2중 기획 세트

피부를 보호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블랙 라인 세트. 옴 블랙 퍼펙트 스킨 120ml + 옴 블랙 퍼펙트 로션 120ml + 옴 블랙 퍼펙트 스킨 20ml + 옴 블랙 퍼펙트 로션 20ml + 옴 블랙 퍼펙트 플루이드 20ml로 구성. 11만원.



헤라 옴 매니시모 인텐시브 2중 기획 세트

감각적인 향기까지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남성 화장품 세트. 옴 매니시모 인텐시브 스킨 100ml + 옴 매니시모 인텐시브 에멀전 100ml + 옴 매니시모 인텐시브 스킨 30ml + 옴 매니시모 인텐시브 에멀전 30ml로 구성. 14만원.

Sulwhasoo



설화수 윤조에센스 퍼펙팅 기획 세트

윤조에센스 퍼펙팅과 자음생 퍼펙팅 라인으로 구성된 알찬 선물. 윤조에센스 퍼펙팅 90ml + 자음수 퍼펙팅 15ml + 자음유액 퍼펙팅 15ml + 자음생에센스 5ml + 자음생크림 퍼펙팅 10ml + 순행글렌징폼 50ml로 구성. 13만원.



설화수 자음 2중 퍼펙팅 세트

설화수의 탄탄한 기초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본 세트. 자음수 퍼펙팅 125ml + 자음유액 퍼펙팅 125ml + 자음수 퍼펙팅 15ml + 자음유액 퍼펙팅 15ml + 윤조에센스 퍼펙팅 8ml + 자음생크림 퍼펙팅 10ml로 구성. 12만원.



설화수 자음생 2중 보은 세트

설화수 자음생 라인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풀 세트. 자음생수 125ml + 자음생유액 125ml + 자음생수 15ml + 자음생유액 15ml + 자음생에센스 8ml + 자음생크림 퍼펙팅 5ml + 자음생아이크림 3ml로 구성. 17만원.



설화수 진설 2중 세트

설화수의 프리미엄 한방 안티에이징 라인인 진설 라인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세트. 진설수 125ml, 진설유액 125ml + 진설에센스 4ml + 진설크림 4ml + 진설아이크림 4ml + 진설마스크 15ml로 구성. 26만5천원.

primera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2중 기획 세트

순한 성분으로 만든 착한 화장품 프리메라의 기초 세트. 오가니언스 워터 180ml + 오가니언스 에멀전 150ml + 오가니언스 워터 30ml + 오가니언스 에멀전 30ml + 나추릭 리치 클렌징폼 30ml로 구성. 6만원.



프리메라 맨 오가니언스 2중 기획 세트

남자 피부를 위한 기초 세트로 가성비 최고의 선물 세트. 맨 오가니언스 트리트먼트 워터 180ml + 맨 오가니언스 모이스처라이징 에멀전 150ml + 맨 오가니언스 퓨리파잉 클렌저 25ml + 맨 오가니언스 트리트먼트 워터 25ml + 맨 오가니언스 모이스처라이징 에멀전 25ml + 맨 워터리 크림 10ml로 구성. 6만원.



프리메라 그린티바이옴 스칼프 세트

단 2가지 제품으로 탈모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샴푸와 모이스처라이저 세트. 그린티바이옴 스칼프 쿨링 샴푸 380ml + 그린티바이옴 스칼프 헤어 모이스처라이저 75ml로 구성. 4만원.



프리메라 씨드 마스크 로타스 30매 세트

순면 시트에 영양이 풍부한 에센스가 듬뿍 묻어 있어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주는 마스크 30매로 구성된 선물 세트. 3만8천원.



이달의 필수템 미리보기

에디터가 간간하게 고른 1월의 필수템.

photographer CHOI MIN YOUNG
editor CHOI HYANG JIN



1. 아이오페 레티놀 포링글 0.3% 레티놀을 고함량으로 함유한 안티에이징 세럼. 20ml, 13만원.
2. 헤라 시그니아 크림 겨울철 탄력을 잃고 건조한 피부를 잡아주는 크림. 60ml, 28만원.
3. 바이탈뷰티 명작수 겨울철 몸의 생기와 활력 강화에 좋은 홍삼 건강 기능 식품. 30염플 30일분, 16만원.
4. 설화수 운조에센스 퍼펙팅 추운 날씨에 지친 피부를 건강하게 가꿔주는 국민 에센스. 60ml, 9만7천원 / 90ml, 13만원.
5. 헤라 루즈 홀릭 새로워진 헤라의 루즈 홀릭. 거친 입술도 매끄럽게 감싸준다. 3g, 4만원.
6. 프리메라 씨드 앤 스프라우트 에너지 마스크 로터스 겨울철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줄 마스크. 20ml×5매, 1만원.



fradore
DEO & PERFUME

Sulwhasoo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3중 마이크로 타겟팅으로 한층 한층 탄탄하게